

서 평

Immanuel Wallerstein, *Geopolitics and Geoculture: Essays on the Changing World-Syste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242 p

이 종 구

이 책의 주제는 탈냉전 시대의 세계체제이다. 저자는 냉전의 종언이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일방적 승리라는 해석을 허위의식이라고 지적한다. 저자의 관점에 의하면 일차대전이 끝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세계를 양분해온 레닌주의와 월슨주의라는 두개의 종말론적 이념도 베를린장벽과 함께 1989년에 무너졌다. 「지구정치」(geopolitics)와 「지구문화」(geoculture)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 이는 알타체제의 붕괴이기도 하며 실질적으로는 1968년의 대전환에 의해 예고되어 있던 사실이 가시화된 것에 불과하다. 이 해에 일어난 프랑스의 5월, 프라하의 봄, 미국의 월남전 반대운동을 비롯한 사회적 사건은 미소의 세계 분할 지배 및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적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구정치」(geopolitics)의 관점에서 보면 공산주의권의 몰락은 「팍스아메리카나」의 끝을 의미한다. 여기에 작용한 세가지의 기본적 동인은 「세계체제 내부에서 전개되는 혜게모니의 교대 유형」 「1789~1968년의 기간 동안에 활짝 피어있었던 자본주의 세계경제라는 이념적 외피」 「역사적 체제의 이행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의 불확실성」이다. 혜게모니의 교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혁명이 일어난 1917년은 차기 세계체제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독일의 경쟁이 시작된 시점이다. 패전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은 독일과의 전쟁은 1945년에 끝났다. 이는 보편주의적 이념을 제시한 미소의 승리이다. 공산주의와 민족자결주의는 계몽사상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그 내용은 합리적 인간 이성에 의한 사회 건설, 국가의 합목적적 의사결정, 종말론적 역사관으로 요약된다. 알타체제는 미소가 협조하는 규칙을 정한 것이다. 1968년이 가지는 의미는 미국의 혜게모니에 대한 도전과 구좌파에 대한 거부라는 측면에 있다. 상호 보강 관계에 있는 미국의 위상 저하에 따라 소련도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소가 동반 몰락한 다음의 혜게모니를 장악하는 국가로는 일본이 주목되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일본의 연합이 세계체제의 혜게모니를 장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21세기 중반에 미국에 대한 일본의 우위가 확립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중국도 서둘러 이 연합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성립되는 미중일 연합은 주변부의 발전도상국과 선택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서구와 러시아는 잠재적 적대세력에 포위되었다고 느끼게 되며 동유럽도 세계의 뒷전에서 가라앉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흑인과 스페인계 소수인종의 문제와 경제구조 재편 과정에서 희생된 집단의 문제제가 때문에, 소련은 거대 관료

집단의 해체과정에서 대두하는 민족집단과 노조의 자기 주장 때문에 모두 외부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게 된다. 따라서 유럽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환경 가운데서 통합을 지향할 수 있게 되리라는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

세계체제가 작동하는 문화적 틀인 「지구문화」(geoculture)의 측면에서 1968년을 보면 프랑스혁명 이후 지배적 이념이었던 자유주의가 도전을 받게되었다. 도전의 내용은 「자유주의적 보편성에 대한 거부」「정치와 경제가 아닌 문화에 대한 지적 관심과 인간의 주체화」「인종과 성이라는 범주의 재발견과 새로운 사회운동」이다. 또한 근대세계체제를 유지하는 큰기둥의 하나인 균형과 선형 변화를 중심으로 한 과학적 분석 및 완벽한 정밀성의 추구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베이콘과 뉴턴이래의 지적 전통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다. 대안으로는 복잡함을 극한적 요소로 환원시키지 않고 그 자체를 이해하려는 새로운 과학적 자세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자연과학과 사회·인문학의 접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냉전에서 승리한 자본주의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주장을 전기하는 것이 저자의 주목적이다. 저자의 관점에 의하면 현재의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16세기 이후에 출현한 역사적 생성물이며 계속 확대되어 지구상에는 처음으로 하나의 역사적 체제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저자는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축적된 내부모순내분에 체제로서 재생산되지 못하고 붕괴하게 된다는 견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변동을 콘트라티에프의 경기순환 모델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1945년부터 1967-1973년에 이르는 기간은 16세기에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성립한 이후 최대의 호황기였으며 전형적인 콘트라티에프 A기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소수의 주도 산업부문을 지배하는 독점기업의 이윤율은 높아졌지만 사회적 지리적으로 분배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었다. 전후 복구를 마친 일본과 유럽의 기업이 시장에 참여하여 경쟁이 가열화됨으로써 독점기업의 지위가 약화되고 잉여가치의 내부 보유비율 상승이 가져온 생산성 저하때문에 이윤율이 급속히 떨어져 세계적 불황기인 콘트라티에프 B기에 접어들었다. 세계적인 실업, 정치화되는 중심부 국가간의 시장쟁탈 경쟁, 부의 지역적 편재, 국제분업의 재편성, 혁신적 제품을 개발하려는 노력 등이 주요 특징이다. 1945-1988년 사이의 세계정치는 경기순환과 대응하여 변동하고 있으며 미국이 발휘하는 헤게모니의 부침 과정과도 대응하고 있다. 특히 1968년 이후 사회과학, 예술, 언어와 같은 문화적 세계에서도 다원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저자는 금세기 말까지 신기술의 생산력화와 세계적 규모의 산업 재배치로 인해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상승국면을 회복하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50년간 호황이 지속되지만 이로써 성장 잠재력도 소진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 즉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발견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

1980년대에 발표한 논문을 편집한 이 책의 행간에서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진보적 지식인에게 미친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저자가 기존 세계체제에 대한 부정의 원점을 1968년의 운동에서 찾으면서 대안으로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회상을 지시하지 않고 있는 모습도 이 충격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측면이다. 다만 자연과학의 용어로 말하면 평

형상태인 보편성을 지향하는 단선적 사회진보라는 도그마를 부정하고 세계 문명의 다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뿐이다.

여기에서 이론적으로 세계체제의 해체를 설명하는 논리가 주목된다. 시스템의 불안정성, 자의성, 비가역성을 강조하는 현대 물리학의 사고를 받아들여 시스템에는 평형상태에서 이탈하려는 속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이탈이 발생할 경우 선형 변화(linearity)가 아니라 분기(bifurcation)가 진행된다. 분기는 「특정한 값에 대한 방정식의 새로운 해법의 등장」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결정론적 속성에 따르는 요소는 분기점과 분기점 사이에서만 존재하게 된다. 분기점에 접근할수록 파동(fluctuation)이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혁신(innovations)과 돌연변이(mutations)가 일상화된다. 새로운 과학론을 세계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적용하면 단기 모순이 중기적 해결책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변환점(asymptotes)에 접근하는 장기 선형 곡선으로 변화하게 된다. 선형 곡선이 변환점에 접근함에 따라 평형상태로 돌아가려는 압력이 감소하여 파동(fluctuation)이 커지고 분기(bifurcation)가 촉진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소규모의 파동이 대규모의 변동으로 귀결된다. 이 논리에 따르면 문명의 성쇠론도 보편지향적 결정론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문명과 문화의 다원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팽창 과정에서 과거된 다른 역사적 체제도 문명과 문화라는 유산으로 남아있다.

저자는 현재의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분기점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계체제의 문화적 탈식민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단언을 내리고 있다. 문화적 탈식민지화는 민족주의로 표현되는 문명의 독자성에 대한 정치적 주장이나 역사를 취급하는 사회과학자들이 문명이라는 개념에 집착하는 현상에서도 보인다. 분기 과정이 진행되면 결정론적으로 규정된 틀이 약화되므로 투입이 조금만 변해도 산출은 크게 변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 의지에 의한 역사적 선택이 중요하게 된다. 여기에서 저자는 다시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과 사회운동이라는 주제로 돌아가며 소련의 소멸은 세계체제 내부에서 마지막의 안정지향적 복원력을 제거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서는 해체를 위한 구조가 없는 해체, 즉 지금의 사회체제에서 주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 부분을 포괄하는 다양한 운동에서 나오는 사회적 실천에 기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결국 반체제 운동이 세계적 차원에서 연대를 결성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새로운 세계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관건이 된다.

윌러스틴의 예언서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실증적 분석이 아닌 역사의식의 차원에서 논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과학적인 함의도 중요하다. 단일 세계체제의 해체와 다원적 문화라는 사고의 틀은 세계화(globalization), 지방화(localization), 국민국가의 위상 저하가 동시에 관찰되는 1989년 이후의 거시적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